

#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회복이 암치료의 핵심이다

| 월터 라스트 | 조남경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저자는 암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세포호흡 시스템인 전자전달계(respiratory chain)가 막힘으로써 생긴다고 보고 이를 면역, 식이, 해독요법과 전자전달계 회복을 통해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법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편집자 주).

**암**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서양의학뿐 아니라 자연의학에  
서도 아직까지 기본적으로는 미지의 상태이다. 수십 년 동안  
자연요법 전문가 및 건강문제 기고가로 일해 오면서 암의 실제 및 치  
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저자는  
이제 암에 대한 퍼즐 조각들을 거의 다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의 차단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관점에 의하면 암은 세포핵에서 우연한 돌연  
변이, 방사선 조사 또는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유전물질들의 손상으

로 인해 발생된다. 암의 발생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종양의 성장을 건강한 신체에서 일어난 순전히 국소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기에 종양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단 발견된 종양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실체는 다르다. 공평한 조사보고들에 의하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암을 치료한 증들과 치료를 받지 않은 증들 사이에는 치료율에서 실제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1). 만약 공정하게 통계를 낸다면 심지어는 암에 대한 화학요법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저자는 의심하고 싶다. 그렇다면 왜 어떤 환자들은 전통적인 항암요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해답은 일부의 종양들은 반드시 확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일부의 종양들은 항암치료를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무해한 상태로 남아있다는데 있다. 현재의 암 연구는 대다수, 결코 암으로 발전하여 전이되지 않는 매우 작은 종양들을 발견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도 통계적으로는 치료된 암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암이 몸에서 확산된다면 전통적인 항암요법은 대체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암환자의 통계적인 생존기간을 평균 5년으로 잡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서양의학에서의 암 모델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그릇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의 암연구자인 시거(Paul Gerhard Seeger) 박사는 이미 1938년에 대부분의 암들이 세포핵을 에워싸고 있는 젤리와 같은 세포질, 그리고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1).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영양분들이 ‘전자전달계(respiratory chain: 수소와 산소가 들어가 에너지와 물로 변환되는 세포호흡 시스템:편집자주)’라는 일련의 효소매개 단계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산화되어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시거는 암세포들에서 이러한 전자전달계가 특히 중요한 효소인 사이토크롬 산화효소(cytochrome oxidase)가 위치하는 부위에서 다소간 차단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만약 이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인체 세포에서는 마치 곰팡이 세포에서와 같이 산소가 없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생산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비능률적이며 결과적으로는 부산물인 젖산이 과다하게 생성되어 세포 및 전신을 지나치게 산성화시키게 된다. 시거 및 다른 연구자들은 암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에서 이용하는 산소량의 단지 5-50%만을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서 암세포들의 악성도(惡性度)는 산소 이용률의 감소와 정비 하며 이는 바로 전자전달계의 차단 정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957년 시거는 전자전달계를 차단시키는 화학물질들을 정상 세포들에 주입하여 며칠 내로 이들을 암세포들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후의 추가적인 실험들을 통해 악성도 낮은 암세포들은 면역계에 의해 용이하게 극복되지만 악성도가 높은 암세포들은 널리 퍼지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뒤이어 시거는 수천 회의 실험들을 통해 주로 식물에서 유래된 어떤 영양소들이 악성도가 낮은 암세포들에서 세포호흡(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역주)을 회복시켜 이들을 다시 정상세포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을 이룩하였다. 암이 세포핵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발생된다는 시거의 발견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1975년에서 1977년까지 이들은 93회의 반복적인 실험들을 실시하였는데 생쥐 수정란의 세포핵을 암세포의 핵으로 교체하는 실험들이었다. 모든 실험에서 세포핵을 교체시킨 생쥐의 수정란은 건강하고 암세포가 없는 생쥐로 발달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자손들까지도 암이 없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

들은 개구리의 수정란들을 통해서도 얻어졌다(2-2).

## 버드위그 항암요법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비만 연구자인 버드위그 박사(Johanna Budwig)(3)는 시거 박사의 연구결과를 임상적인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1950년대에 그녀는 암환자의 암세포에서 전자전달계가 차단된 것을 느리게 퍼지는 황록색의 반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검사법을 개발하였다.

충분한 양의 고품질 아마씨 기름과 유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및 메티오닌을 섭취하게 하면 황록색 반점이 사라졌는데 이를 통해 차단되었던 전자전달계가 다시 작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종양들도 사라져서 암환자들이 회복되었다. 유황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주된 음식은 생우유를 발효시켜 만들어진 코티지치즈(cottage cheese)의 형태로서 독일 전통의 저지방 치즈인 크바르크(Quark)였는데 그녀는 유황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모든 음식들은 “가능한 자연적”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섭취된 음식물에서 유래된 전자들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 산화과정을 통한 에너지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지방산(EFA)과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분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교량을 따라 흐르도록 되어있다. 이 교량은 사이토크롬 산화효소 단계에서 대사성 및 미생물 부산물들과 독성물질들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의해 인체 세포에서의 에너지 생산은 종양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곰팡이 세포 유형의 에너지 생산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막힌 교량을 신선한 시스테인-필수지방산으로 대체

하여 수리하면 전자들의 흐름이 재개되어 세포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

버드위그가 발견한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는 대사적 부산물의 유형은 주로 상품화된 다가불포화(polyunsaturated) 기름들에서 유래된 변성 지방산을 함유하는 인공적 기름들, 마가린이나 마요네즈와 같이 화학적으로 경화시킨 기름들, 그리고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 처리되는 식품에 첨가되는 합성의 항산화 방부제들 등이었다.

전자전달계에서 차단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복원시키려면 유황아미노산들과 필수지방산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지방산들의 지나친 휘방이 없는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인지질인 레시틴(lecithin)의 부가적인 섭취는 매우 유익하다. 또 다른 유황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흡수되면 시스테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한 유용하지만 고용량의 섭취는 적절하지 않다.

버드위그에 의하면 활력의 증가와 같은 유익한 결과들은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빈번히 관찰될 수 있지만 종양 자체는 수개월이 지나야만 위축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또한 그녀가 적혈구들과 혈청에서 관찰하였던 벌레모양의 미생물들(Canceroben, 암을 유발하는 미생물-역주)도 점차적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버드위그의 항암요법에는 저자로 하여금 실행을 망설이게 만드는 문제점들이 있다. 버드위그 식사법에서는 유제품들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식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화 장애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알려진 바대로 우유에는 종양의 성장, 특히 호르몬에 민감한 종양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호르몬(IGF-1)이 함유되

어 있다. 게다가 버드위그와 마찬가지로 저자도 생우유내지는 가열하지 않은 우유가 건강에 유익하다고 여기기는 하지만 호주와 같이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과 미국 대부분의 주들에서 그런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버드위그는 자신의 항암요법으로 암환자들에게서 90% 정도의 치료율을 거두었는데 발효 및 낱것 유기농 제품들을 고용량으로 투여했을 것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통적으로 평소에도 유제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저자는 시판되는 비유기농 유제품들 및 저온살균 처리된 코티지치즈를 섭취할 경우의 치료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아마도 버드위그가 거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인슐린 유사 호르몬(IGF-1)의 존재는 명백히 버드위그의 치료결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종양의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제거되면 IGF-1의 존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GF-1과 유당(lactose)은 주로 유청(whey)에 존재하므로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버드위그는 저지방 치즈(quark)뿐만 아니라 버터밀크, 신선한 생우유, 발효된 독일김치(sauerkraut) 그리고 물에 불려 발아시킨 곡물(soaked grains) 등과 같은 자신이 고안한 식이요법에서 권장되었던 식품들이 장의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대량으로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그녀의 항암요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녀의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찬사들이 있어왔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미국의 어떤 전립선 암환자가 2000년에 버드위그(그녀는 2003년에 향년 95세로 타계 하였다)에게 개인적인 자문을 구했었는데 모든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암연구자인 시거(Paul Gerhard Seeger) 박사는 이미 1938년에 대부분의 암들이 세포핵을 에워싸고 있는 젤리와 같은 세포질, 그리고 특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고 그 환자는 6년 후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하였다. 비록 그 환자가 독일산 저지방 치즈 대신에 미국산 코티지치즈를 섭취하기는 하였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던 버드위그 항암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던 문제였다(4).

저자는 버드위그의 접근방법에서 이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결함들을 발견하였다. 버드위그의 식이요법이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 인(phosphorus)의 비율은 낮아서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칼슘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던 반면에 마그네슘의 비율은 낮았는데 이것은 많은 조건들 특히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버드위그가 병용할 수 있는 항균요법을 실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인회석을 형성하여 신장결석 및 동맥경화 등의 병적인 석회화 질환들을 일으키는 나노박테리아(nanobacteria)의 석회화를 일으켰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5). 게다가 버드위그는 필수지방산(EFA)을 산화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E의 사용을 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의 식이요법을 실행하였던 암환자들 대부분의 혈액에는 보호되지 못한 필수지방산이 고농도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 환자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능동적 또는 수동적 흡연, 그리고 특히 염소로 소독된 수도물 등에 의한 산화작용에 노출되었다면 고농도의 필수지방산은 대량으로 내부적인 자가-산화물을 일으켰을 것이다. 염소로 소독된 수도물은 동맥경화 및 심장발작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6). 이러한 영향들을 고

려하여 저자는 저지방 치즈(quark)에다 우유, 버터밀크, 그리고 유청(whey)을 추가하여 이용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이들 모두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에 저자는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또한 새로 개봉한 아마씨 기름병에 천연 비타민 E를 첨가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의 우려들과는 반대로 천연 비타민 E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버드위그는 자신이 고안한 식이요법에 대해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심지어 종양들과 전이된 암들이 소멸된 이후에도 가공 처리된 육류, 식당 음식, 또는 방부제 및 합성 항산화제가 함유된 다른 음식들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일부의 환자들에게서는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여기에는 암 유발 미생물들(Canceroben)의 갑작스러운 증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은 수주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으며 시스템인 및 아마씨 기름의 섭취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종양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서 대략 5년이 지나면 버드위그가 권장하였던 건강식품들에다 일반식품들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섭취하는 것은 거의 위험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버드위그 항암요법에서 빠뜨린 부분들 중의 하나라고 여기는 암 유발 미생물들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 버드위그는 암의 원인 및 치료에서 암 유발 미생물들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

## 암 유발 미생물들

때때로 저자는 악성 종양들이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을 주입하는 것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반면 노인들이나 암환자의 혈액으로

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접한다(7). 이것은 암이 인체의 활력과 면역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독립연구자들이 모든 암환자들의 혈액과 종양 속에는 어떤 다형성(pleomorphic) 미생물들이 증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8). 이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독일 미생물학 교수인 귄터 엔더라인(Guenther Enderlein)에 의한 것인데 1925년 그는 정상적으로는 미세한 콜로이드 단백질 단위들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미생물의 서로 다른 상태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에 의하면 다양한 퇴행성 질환들 특히 암에서는 이러한 단백질 단위들이 성장하여 구균들(cocci) 및 좀 더 상위 형태인 세균들(bacteria)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진균류(fungi)가 된다.

엔더라인에 앞서 19세기에 프랑스인 교수인 앙트완느 베샹(Antoine Bechamp)도 또한 이와 유사한 미생물들을 기술하였으며 발효미생물(microzymas)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890년 스코틀랜드 병리학자인 윌리엄 러셀(William Russell)도 또한 암 유발 미생물을 발견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의 형태는 종양들에 존재하는 러셀소체(Russel body)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여러 다른 연구자들(Royal Rife, Wilhelm Reich, Virginia Livingston-Wheeler, Alan Cantwell, 그리고 Gaston Naessens 등)이 대부분은 서로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현상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정통의학에서 미생물들은 언제나 동일한 형태를 가지며 바이러스가 변하여 세균이나 진균이 될 수 없다는 정설을 고수해왔다. 이로 인해 정통과 미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조직에서 죽은 상태로 염색된 미생물들을 관찰하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고배율로 살아있는 조직에서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하는 대신에 단기간 동안에만 살아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한다.

여하튼 이러한 미생물을 통칭하여 암 유발 미생물(cancer microbe)이라고 부르는데 악성 종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해성을 많이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미생물은 면역계를 심각하게 약화시켜 암세포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버린다. 이 미생물의 발달된 형태들에서 방출되는 독소들은 말기 암에서처럼 특징적인 악취를 풍기며 실험 동물들을 죽게 만든다. 만약 이 미생물과 이들이 만들어낸 독소들을 실험동물들에 주입하면 암을 일으키게 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암 유발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로 인해 종종 암이 치료되거나 경감되기도 하였다. 암 유발 미생물은 보통 건강과 활력이 쇠퇴하면서부터 증식하기 시작한다. 이 미생물은 병든 세포들이 파손되어 생성된 부산물들로부터 기원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체가 덜 건강해질수록 이 미생물은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세포벽이 없는 가장 작은 자유생활 미생물-역주) 단계로부터 점차적으로 세균 및 진균의 형태들로 발달된다. 면역계와 면역작용을 약화시킴으로써 이 미생물은 암이 발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 암 유발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들은 또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전자전달계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암 유발 미생물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두 가지 요인은 썩은 치아와 장에서 유해한 미생물들이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이다. 썩은 치근들과 주위의 턱뼈는 유해한 혐기성 미생물들의 집중적인 번식처가 되어 독소들을 지속적으로 순환계로 유입시킨다(9). 위 장관에 유해한 미생물이 지나치게 증식하는 것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면역계를 황폐화시켜 빈번히 자가 면역 질환들과 칸디다균과 연관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10). 따라서 전자전달계를 복원시키는 것 이외에도 인체에 해독을 끼치고 면역계를 무력하게 만드

는 미생물들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치료는 미생물들이 만연하게 된 주된 원천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즉 미생물을 죽이는 강력한 약물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해독요법을 병행하여 위장관을 정화시키고 모든 충치들을 제거하여 미생물의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다. 위장관을 정화시키려면 적절한 양의 살균 약물을 사용하여 유해한 세균 및 진균을 죽이고 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식사 중간 또는 식사 전에-역주) 고용량의 유산균 제제(probiotics)를, 가급적이면 집에서 만든 유산균 발효유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살균 치료에서는 강력한 처방들이 필요하며 최소한 몇 주에 걸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가 선호하는 방법은 탄산나트륨과 루골(Lugol) 용액 또는 정제 형태(Iodoral)로 고용량의 요오드를 대략 3주에 걸쳐 투여하며 이후의 추가적인 치료기간에는 산성화된 아염소산나트륨(ASC)을 투여한다(11). 또한 대량의 썩(wormwood)과 포다르코(paud'arco) 또는 올리브 잎 추출물 등을 복용하는 것도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 소위 전자 살충기(electronic zapper)나 자기펄스 변조기(magnetic pulser)도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다양한 살균 약물들도 사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면역계도 특정한 영양제들을 투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그리고 비타민 D(햇빛) 등이 유용하다. 다른 많은 유용한 건강식품들 중에서 특히 자줏빛 주스를 만들어내는 딸기류의 열매들(예를 들어 cranberry-역주)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일부의 암환자들은 주로 살균 약물들을 투여하여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암환자들은 전혀 그런 행운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암의 원인과 이에 따른 치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암치료법들은 일

부의 성공과 일부의 실패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 무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전달계의 복원과 더불어 살균요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은 암의 생화학적 원인들을 극복하여 매우 높은 치료율을 가져다 줄 것이다.

## 해독요법

암 유발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들에 의한 문제에 덧붙여 식품 및 환경에서 유래된 독소 및 비생물학적 화합물에 노출되어 입은 손상도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손상은 면역계를 크게 약화시키는데 시거(Seeger) 뿐만 아니라 버드위그도 이것이 전자전달계를 차단하는 하나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자연요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연의학적인 모든 항암요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독요법과 오염된 음식과 화학처리된 음식의 섭취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거슨요법(Gerson Therapy)(12), 포도요법(Grape Cure)(13), 또는 브루스요법(Breuss Cure)(14)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암치료의 효용성을 인정받은 대부분의 자연요법들에서도 또한 암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날 음식들과 영양제들을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도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는 해독요법과 청정한 섭생에 의존하고 있다. 포도요법과 브루스요법은 반단식(semi-fasting) 요법으로 암의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체중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좀 더 넓은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하기는 좀 더 까다로운 거슨요법은 좀 더 진행된 암환자들에게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이러한 해독요법과 자연회귀적인 섭생에서는 활력을 높이는 데 있

어서 유기농 식품, 화학처리 되지 않은 식품, 그리고 날 음식과 생유산 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정통의학의 비웃음을 받고는 있지만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을 날것으로 한 달에 세 접시 정도 먹는 것은 방광암의 발생 위험성을 40% 낮춰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소들을 익히게 되면 항암효과는 소실된다고 한다(15). 한편 최근에 한 의학연구에 의해 해독요법의 또 다른 근거가 입증되었는데 세포들에서 단백질 파편들 또는 손상된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들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시킨다고 한다(16). 물론 이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여 특허를 받을만한 약물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해독요법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암 유발 미생물들이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에서 분리된 매우 작은 단백질 마이코플라스마에서부터 발생되어 점차로 세포의 내부에 축적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백질 찌꺼기가 좀 더 상위 수준인 세균 및 진균의 형태로 발달할수록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유산소 대사는 좀 더 차단되고 염증발생 가능성은 좀 더 높아져서 전신의 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염록소가 풍부한 날 음식을 섭취하는 해독요법은 체액을 강력하게 알칼리화 시켜서 염증과 통증을 없애준다. 날 음식 해독요법에서 통증 및 염증은 보통 대략 3일 이내에 사라진다. 단지 중탄산염(소다-역주)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단 기간 내에 강력한 알칼리화와 통증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일 동안 한시적으로 날마다 공복에 또는 식후 2-3시간 후에 소다 반티스푼을 물에 타서 복용하면 된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몸을 알칼리화 시키면 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하라. 살균요법은 암 치료의 첫 단계로서 암 유발 미생물 및 다른 미생물들을 특히 진균류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생물들의 서식지

인 장 및 썩은 치아 부위를 정화시키고 추가적으로 세포들에서 단백질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것은 차근차근 실시해야할 과정이며 좀 더 강력한 초기 해독요법을 실시한 이후에는 장기간 청정한 섭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종양의 발생원인

정말로 무엇이 실제로 암을 발생시키는 것인지는 여전히 미해결된 문제이며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제까지 언급된 모든 요인들이 암의 핵심적인 요인들이기는 하지만 류머티스성 관절염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들과 만성피로증후군도 또한 여기에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암 유발 미생물은 이 모든 경우들에서 존재하는데 버드위그는 암환자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전달계가 차단되는 당뇨병 및 다른 질병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언급했으며 또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면 그 질병도 회복될 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들의 치료와 비교하면 암치료에서는 추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인체의 특정한 작은 부위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들은 만연된 만성염증과 연관된다. 만성염증은 면역계가 감염원들, 즉 암 유발 미생물들 또는 병든 인체세포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결과이다.

만약 어떤 질병의 원인이 매우 제한된 인체의 어떤 부분에만 나타난다면 염증성 면역반응도 단지 그 작은 부위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한 그룹의 세포들이 독성 화합물들의 축적에 의해 비정상 상태가 되어 국소적인 전자전달계의 차단과 이로 인해 가능

만약 면역계가 아직은 강력하여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국소적인 상태이고  
암 유발 미생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로 파급되기 이전이라면  
어떤 독소들도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다.

해진 마이코플라스마의 증식이 생긴다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면역계가 성공적으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데 실패한다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져서 인체세포들에 대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격전지 주위에 단단한 섬유벽을 만드는 섬유증(fibrosis) 과정으로 진행되어 마침내는 종양이 형성될 것이다. 만약 면역계가 아직은 강력하여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국소적인 상태이고 암 유발 미생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로 파급되기 이전이라면 어떤 독소들도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종양 주위의 염증이 가라앉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양성의 또는 잠복성 종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요인들이 좀 더 심각해져서 종양부위 세포들의 활력이 크게 감소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을 하는 단계에서 혈액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다면 종양은 성장하게 된다. 종양 내부의 암 유발 미생물들은 점차로 호전적으로 변하며 높은 산도와 만성염증의 도움을 받아 암세포들이 주위 조직으로 침입하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암 유발 미생물 및 다른 미생물들이 전신에 걸쳐 활성화되는 것에다 만연된 전자전달계의 손상이 부가되면 암세포들은 종양 부위에서 벗어나 번식할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서 인체의 다른 부위들에 부착되어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암의 전이(metastasis)라고 부른다. 어떤 면에서 암성 종양들은 버섯과 비교될 수도 있는데 양자 모두 광범위한 진균성 뿌리(fungal root)와 지지 체계로부터 발달되기

때문이다. 종양-버섯 그 자체는 대부분의 손상을 일으키는 지지 체계와 진균의 만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유해하다. 최종적으로 암 유발 미생물이 진균의 형태로 발달되어 만연한 것이 전신에 해독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암의 마지막 단계인 악액질(cachexia) 상태라고 부른다.

## 종양의 위치

어떤 종양을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예를 들어 우측 보다는 좌측 유방에서 생기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은 서로 다른 요인들이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종양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소적인 독소오염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생성기전이 손상되고 세포의 활력이 감소되어 곰팡이에서와 같은 비정상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부위에 전자전달계를 차단하기에 적당한 농축된 암 유발 미생물이나 독소를 주입하여도 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암 유발 가능성은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가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경우, 또는 지하수맥에서 방출되는 지자기파(수맥파-역주)가 강하게 방출되는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경우, 또는 종양 부위에 대해 방사선 조사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침구경혈 전기저항 진단을 실시하는 자연요법 전문가들은 특정한 치아와 특정한 장기 또는 같은 쪽 신체의 특정한 부위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표를 개발하였다(17). 만약 어떤 치아가 치근관 신경치료로 인해 신경이 차단되었다면 이 치아와 연계된 장기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만약 이런 상태가 암 유발 미생물의 전신적인 만연

으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의 저해와 맞물린다면 그 장  
기에서는 종양이 발생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립선에는  
아연이, 갑상선에는 요오드가, 그리고 흉선에는 마그네슘이 고용량으  
로 필요하듯이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고용량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결  
핍된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결핍이 다른 악화 요인들과 맞물린다면  
그 내분비선에서는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단단하게 조이는 브래지어를 습관적으로 착용  
하는 것도 발병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18). 강물의 유속이 감소되  
는 부위에서 퇴적물이 쌓인다는 원리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유방 부위에서 림프액 순환이 저해  
되면 독성 화합물들이 유방의 지방조직에 축적될 수 있다. 또 다른 문  
제는 왜 한쪽 유방이 다른 쪽보다 더 잘 유방암에 걸리는가라는 것이  
다. 이 문제의 해답은 감정적인 차원(우뇌반구와 연관-역주)에서 찾  
아야만 할 것이다.

## 감정문제와 암

버드위그 박사는 또한 그녀의 환자들에게 감정적인 문제들의 해소  
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항암요법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저  
자도 그녀의 암치료 성공률이 유명한 치료자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환  
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감에 의해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확신하고 있  
다. 또 다른 독일인 연구자인 하머(RykeGeerd Hamer) 박사는 암의  
종류들과 종양의 위치들을 특정한 종류의 심리적인 충격과 연계시켜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녀, 가정 또는 어머니와 연관된 정신적 충

격은 좌측 유방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정신적 충격은 우측 유방에 영향을 미친다(19).

하머 박사는 대부분의 전이성 암들 또는 2차성 종양들이 암이라고 진단 받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예후로 진단된 환자들이 갖는 암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해법은 암을 유발시킨 정신적 충격을 파악해서 이를 중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두려움이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또한 원격치료자이자 신지학자였던 죠프레이 허드슨(Geoffrey Hodson)의 관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미 한쪽 유방에 암수술을 받았던 한 여자가 다른 쪽 유방에서 암이 생겼을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두려움은 그 여자의 유방 주위에 짙은 회색의 오라(aura)를 만들어냈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점차로 통증이 증가되고 종양이 발생되어 마침내는 수술을 권유받게 되었다. 허드슨이 그녀의 유방 주위 오라를 정확히 하고 두려움을 다른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체시키자 회색의 오라는 점차로 해소되었으며 또한 종양과 통증도 사라지게 되었다. 허드슨은 만약 그녀가 수술을 받았더라면 암은 거의 다시 재발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20). 유방암 중에서 유관상피내암(DCIS)은 빈번하게 침습적인 종양으로 발달하지만 대체적으로 해가 없는 유방에서의 석회화 병변이다. 의학계에서의 우선적인 치료는 유방절제술(mastectom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의 1%에서는 악성 종양의 국소적 재발이 일어나며 또 다른 1%에서는 원격 전이가 일어난다.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유관상피내암을 가진 여성들은 암이라고 진단받은 것보다는 악성 종양으로의 재발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21). 해가 없었던 석회화 병변이 유방절제술 이후에 악성 종양으로

재발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할만한 일이지는 않지만 이 여성들은 처음부터 유방절제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도록 자신들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장기의 활력 부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종합적인 암치료법의 좀 더 중요한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을 실행에 옮기려면 이완내지는 명상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유도된 심상훈련을 날마다 실시하는 것이 좋다.

## 합리적인 암치료 프로그램

합리적인 암치료 프로그램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면역요법-강력한 살균요법 및 면역강화요법
- 버드위그(Budwig)의 원리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의 기능회복
- 유기농 자연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물을 이용한 해독요법 및 체액의 알칼리화
- 연관된 장기의 활력을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정화시키기 위한 날마다의 심상훈련
-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신적 충격들을 찾아내서 중화시키기
- 암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치료하기
-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 치료약들 및 치료법들.

종양을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고약(Casema<sup>®</sup>)(22) 또는 중탄산나트륨(23)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는 가능하지만 해독요법과 더

불어 면역요법, 대사기능 개선, 감정충격 해소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암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으로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치료법들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저자의 홈페이지(<http://www.the-heal-yourself-series.com>)를 참고하기 바란다(24). 그러나 전인적인 암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최상의 치료약들과 치료법들을 조합하는데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는 드물 것이다. 🌀

### 참고문헌

- (1) Last, W: How Scientific are Orthodox Cancer Treatments?
- (2-1, 2-2) The only book available in English is Seeger, P.G. and S. Wolz: Successful biological control of cancer by combat against the causes.
- (3) Budwig, J: The most detailed information is at [www.healingcancernaturally.com/budwig\\_protocol.html](http://www.healingcancernaturally.com/budwig_protocol.html).
- (4) <http://www.healingcancernaturally.com/dr-budwig-patient-consultation.html>
- (5) Mulhall, D: The Nanobacteria link to Heart Disease and Cancer.
- (6) Price, J.M: Coronaries/Cholesterol/Chlorine.
- (7) Scienceblog.com 30-06-2008: Cancer 'cure' in mice to be tested in humans <http://www.scienceblog.com/cms/cancer-cure-mice-be-tested-humans-16786.html>
- (8) Cantwell, A: The Cancer Microbe.
- (9) Meinig, G,E: Root Canal Cover-Up.
- (10) Truss, C,O: The Missing Diagnosis.
- (11) Last, W: The Ultimate Cleanse
- (12) Gerson, M: A Cancer Therapy: Results of 50 cases.
- (13) Brandt, J: The Grape Cure.
- (14) Breuss, R: The Breuss Cancer Cure.
- (15) Adams, M: Raw Broccoli, Cabbage Slash Bladder Cancer Risk by 40 Percent; Cooking Destroys Benefits.
- (16) Scienceblog.com 11-08-2008: Researchers correct decline in organ function associated with old age.
- (17) <http://www.health-science-spirit.com/dental.html>
- (18) Singer, S,R. and S. Grismaijer: Dressed to Kill.
- (19) The official English-language website of Dr Hamer is at <http://www.newmedicine.ca>; see

also Last, W: The New Medicine of Dr Hamer.

(21) Phend, C: Fears of Recurrence Linked to Anxiety After DCIS Diagnosis.

(22) See [www.health-science-spirit.com/cansema.html](http://www.health-science-spirit.com/cansema.html) with suppliers listed at the end of this article

(23) Simoncini, T: Is the Cause of Cancer a Common Fungus?

(24) See the 8-part series Overcoming Cancer at

<http://www.health-science-spirit.com/diseases.html> and the book Overcoming Cancer at

<http://www.the-heal-yourself-series.com>

• 이 글은 'The Holistic Cancer Soluti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월터 라스트(Walter Last)** | 영양학과 자연치료를 실행하면서 화학자, 영양학자, 독물학자(毒物學者)로서의 훈련과 연구경험을 결합하였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그라이프슈발트, 쾰른, 뮌헨 대학의 의학연구소에서 연구와 독물학 조사 분야에서 일해 왔다. 그는 쾰른에서 주임 법 화학자였고 LA의 생물학 실험실에서도 일했다. 70년 그는 뉴질랜드에 정착하였으나 약에 기반을 둔 의료에 불만족하여 자연치유사로 임상을 했다. 1981년 이래 퀸즈랜드에 살고 있으며 난치병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연의학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자연치유법을 많은 영역에서 조사하고 실험해왔다. 월터 라스트는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치유의 음식들', '치유를 위한 자연스런 방법 - 최상의 건강을 얻기 위한 65가지 방법'의 저자이다. 또 '자가 암치유' 도서에 주요 기고자이다. 그는 넥서스 메거진의 정기적인 기고자이며, 그의 최근의 책은 '그대 자신을 치유하라' 시리즈이다. 그의 웹사이트는 [www.health-science-spirit.com](http://www.health-science-spirit.com)이다.

역자 | **조남경** | 1962년 생.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Energy-Medicine분야를 연구중. 역서 <척추 축만증>, <Foundation of Osteopathy Medicine>, <Foundation of chiropractic-Subluxation> 등 다수